

4/18/21

설교 제목: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다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47 장 1-12 절

- (1)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 (2)형들중 오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 (3)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나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 (4)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 (5)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네 아비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 (6)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 (7)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 (8)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연세가 얼마뇨
- (9)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일백 삼십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 (10)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 (11)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 (12)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궤하였더라

하나님께서서는 애굽과 경계가 인접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묻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창 46:1)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창 46:2)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창 46:3)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창 46:4)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야곱가로 하여금 애굽에 내려가 고센 땅에 거하게 한 것은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야곱가가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일정 기간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보호 아래 두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창 15:13)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창 15:14) 그들은 사백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 15:15)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창 15:16)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이 언약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 야곱으로 하여금 권속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야곱가를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였고 고센 땅에 거하게 하였습니다.

야곱과 그의 권속들을 고센 땅에 거하도록 한 것은 그들이 애굽 사람들과 동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였습니다.

당시 고센 땅은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아 애굽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권속들이 애굽 사람들과 분리되어 정체성을 유지하며 큰 민족을 이루기에 합당한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타고 아들들과 그들의 모든 자손들과 모든 재산과 모든 짐승 떼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같이 내려간 식솔들이 총 70 명이었습니다.

(창 46:26)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육십 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창 46:27)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칠십 명이었던대

이들 70 명이 430 년 후 200 만명이 되어 출애굽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야곱의 온 권속이 드디어 애굽에 도착하였습니다.

요셉은 수레를 타고 고센에 올라가서 아버지 야곱을 맞이합니다.

야곱과 요셉은 서로 목을 껴앉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네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두 아들을 잃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하란으로 보낸 후 20 년이나 보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은 줄로 알았다가 20 년이 지나서 애굽에서 만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로 하여금 이렇게 아들을 잃는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조상들로 하여금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당신의 아픔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상봉한 후 바로에게 가서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고센 땅에 도착했음을 알립니다.

그자리에서 요셉의 형들은 바로에게 요셉이 시킨대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해 줄 것을 청합니다.

(1)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2)형들중 오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3)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나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4)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5)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네 아비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6)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바로는 요셉의 형들의 청을 받아들여 그들을 고센 땅에 거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같이 야곱가의 모든 일에 세심하게 간섭하고 역사하심으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도, 고센 땅에 거하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국 야곱가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대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사대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7)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8)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연세가 얼마뇨

(9)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일백 삼십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0)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11)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12)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궤하였더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서더니 바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것인데 양식이 없어 이곳으로 이주해 온 자가 그 나라 왕을 축복하다니요?

이것도 셈의 후손이 함의 후손의 주가 될 것이라는 노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창 9:20)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창 9:21)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창 9:22)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창 9:23)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창 9:24)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창 9:25)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창 9:26)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창 9:27)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애굽에는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도 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 간 것은 셈의 후손인 야곱이 함의 후손인 바로의 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그리고 나오면서 바로를 축복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일백 삼십 년이니이다”라고 대답하며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강조합니다.

돌이켜 보면 그의 인생은 참으로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다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그러나 그것이 어디 야곱의 인생 뿐이겠습니까?

모든 믿음의 선전들의 인생이 모두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히 11:13)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히 11:14)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히 11:15) 저희가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히 11:16)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본향을 사모하며 산 이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또한 나그네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시는지요?

야곱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고 계신지요?

아니면 천년만년 살 것처럼 땅의 것을 붙잡고 이땅에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입니다.

거룩한 순례자들답게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한시도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좇아 거룩한 순례자로 이 땅에서 살다가 더 나은 본향으로 옮기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